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larksons says shipping is back to pre-pandemic levels after 'exceptional recovery'

Clarksons에 따르면 해상 물동량이 COVID-19발생 이전 수준으로 상당부분 회복했다고 보도됨. 2020년 해상 물동량은 -3.4% 감소했으나 톤-마일 기준으로는 -1.6% 감소에 그쳤다고 보도됨. 2020년 5월 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했으나 4분기에는 감소폭이 2%로 줄면서 빠르게 회복한 영향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Iran plans to export oil from Gulf of Oman as nuclear talks advance

핵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이란은 다음 달 부터 Gulf of Oman산 석유 수출을 재개한다고 보도됨. 이란은 최근 중동지역 여러 수출터미널을 확보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지정학적 risk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Boxship charter rates soar to all-time high amid 'paradigm shift' to longer periods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됨. New ConTex 지수는 전 주 대비 +2.3% 오른 1,350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Howe Robinson Containership Index 또한 2,133p를 기록하며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upreme Court rules for GTT in South Korea fair trade battle

한국 대법원은 조선소의 기술 라이선스 및 지원 규정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위원회-GTT 간의 분쟁에서 GTT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됨. 결과적으로 GTT는 기존의 사업방향에 대한 변경 및 수정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됨. (TradeWinds)

IEA roadmap for net zero emissions by 2050 gets chilly response from US industry groups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신규 Oil/Gas에 대한 개발 및 투자는 없을 전망이다 이는 IEA의 보고서가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에너지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라고 IEA의 보고서를 비판했다고 보도됨. NOIA(National Offshore Industries Association) 또한 비슷한 이유로 IEA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우리나라 조선 빅3 인력, 1년 만에 1000명 이상 떠나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 3사(현대중공업그룹 · 대우조선해양 · 삼성중공업)에서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떠났다고 보도됨. 지난해 선박 수주 부진, 구조조정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결과로 3월 말 총 직원 수는 25,148명이라고 보도됨. 전년동기대비 1,046명의 근로자가 조선소를 떠났다고 보도됨. (이투데이)